

메시지 4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

성경: 마 1:21-23, 18:20, 28:20, 딤후 4:22, 요 14:17

- I.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 요 15:4.
- A. 거하시는 영, 곧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와 삼일 하나님의 상호 거함, 상호 내주함의 요소와 영역이시다 — 요일 4:13, 16하.
- B. 우리에게는 신약의 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필요하다. 신약의 사분의 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관련되며, 신약의 사분의 삼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다.
- II.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마 1:23.
- A.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분배하심으로(롬 8:2, 6, 10-11)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8:14-15, 19, 23, 29, 17)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12:4-5) 결국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이다(계 22:1-2).
- B.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 마 1:21-23.
- C. 예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1. 그분은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18:20.
  2.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28:20.
  3.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딤후 4:22.
    - a.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 사 8:7-8.
    - b.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 — 사 8:10, 비교 요일 5:4, 요 3:6.
- D.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 요 1:14, 14:16-20, 고전 15:45하, 딤후 4:22.
1.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임 때 삼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 마 18:20, 28:20, 시 119:130, 행 6:4.
  2.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 — 갈 6:18, 행 9:31.
  3. 그 영께서 인도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임재이다 — 롬 8:14, 16.
  4.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 곧 그 영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린다 — 고후 13:14.

E.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임재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 갈 5:25.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다 — 갈 2:20.
2.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산다.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3.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고후 2:10, 4:6-7, 갈 5:25, 창 5:22-24, 히 11:5-6.

F. 우리가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2021년 여름 훈련 개요) — 마 1:23, 딤후 4:22, 갈 6:18, 시 27:4, 8, 51:11, 고후 2:10.
2.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제삼자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직접적인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스림 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2021년 여름 훈련 개요)
3.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육십팔 년 남짓의 체험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8장, 61-62쪽.(2021년 여름 훈련 개요)

G.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일부이다. 신약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사람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친다 — 마 1:23, 고전 6:17, 행 9:4, 딤후 3:15-16, 계 21:3, 22, 겔 48:35.

### III.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 갈 2:20하, 빌 1:19-21상.

- A.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1:25), 부활은 한 인격이다. 실재의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시자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재이시다(고전 15:45하, 요 14:17, 16:13, 요일 5:6, 빌 3:10, 출 30:22-25).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다. 외적인 환경은 내적인 그 영과 협력하여,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인다 — 롬 8:9-10, 13하, 28-29, 고후 4:7-18.

1.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 엡 4:1, 6:20, 고후 1:8-9, 12.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그 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 시편이 다윗과 신성하신 하나님의 인간적인 대화였음을 가리키며,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십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나면, 우리는 불붙을 것이며 부활의 실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C. 예수님의 인성은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매혹하시고 소중히 보살피신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인성 안에서 하신 것이다. 주님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근원, 곧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부활 안에서 인간 생활을 하셨다 — 요 5:19, 30, 14:24.
1.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생활은 비밀스럽게 되었다. 곧 비밀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 롬 13:14, 갈 2:20, 빌 1:19-21.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것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상).
  3. 우리는 모두 주님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에 의해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 ‘부활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천연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 D. 썩 난 막대기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썩트고 썩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민 17:8.
1.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한 후에, 하나님은 열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의 증거판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민 17:4).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썩이 날 것이니”(5절)라고 말씀하셨다.
  2. 열두 개의 막대기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썩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무관한 것임을 본다. 따라서 썩 난 막대기는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권위가 있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3. 모든 봉사의 원칙은 썩 난 막대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열한 개의 막대기는 인도자들에게 돌려 주셨지만, 아론의 막대기는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민 17:9-10.
  4. 아론의 막대기에서 썩이 난 후에, 그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체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고후 12:7-9, 롬 9:15-16, 21, 23, 눅 1:78-79.

5.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것이다(고후 3:5, 마 26:33, 요 21:15, 비교 막 11:9).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고후 12:7-9, 약 4:6, 비교 롬 12:3, 갈 5:26, 마 18:3-4, 20:20-28, 고후 4:5).
6. 부활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이다.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 고후 1:8-9, 4:7.
7.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1:12, 빌 3:10-11.
8.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연적인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끝나야 한다 — 마 19:26, 막 10:27, 눅 18:27.
9.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임을 보아야 한다.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나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 곧 우리 안에 사시는 분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에 대처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빌 4:5-7, 12, 1:21상.